불교신문 제2942호 불기2557년(2013년) 9월 4일 수요일 7 기회



호주인 가슴에 한국불교 아름다움을 새기다

준계좆 시드니 '17ΔΔ년 한국봉교의 지례' 해사



불교문화 체험장에 2만명 다녀가 호주의 한국불교 위상 높여

데퓨다의 이즈인가 시납니에서 메모면 권투 다즈 만들기 등 체험행사를 통해 한국불교문화를 소개했 다. 포교원장 지원스님과 중앙승가대 총장대행 미신 스님은 감감 대중법문과 영어감연으로 하지인들에 게 부처님 가르침을 전했다. 비구니 스님의 출가와 수행을 영화화한 '김위에서'도 4회 상영돼 한국템 자들과 현지인의 관심을 모았다. 이외에도 호주 현 지 과과인계와 주리인계, 어른사를 추정해 하고불고 를 대표하는 사항용식과 벡플스테이를 알리는 시간

한국불교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행사장을 찾 으 하지이들이 바우오 뜨거워다 시란들은 컨투네 단주를 직접 만들고, 단청문양에 색을 칠하면서 연

시 "보더용"은 이와다 하급바이시기 이기되었다. 가 장 많은 참가자들이 몰려들어 쉴 틈이 없었다. 하급 이라는 낯선 문자를 접하고, 먹을 묻혀 찍어내는 것 자체가 생소해서라고 한다. 단주만들기 체험부스에 는 많은 사람들이 다녀가, 행사가 끝나기도 전에 재 근가 소지되기도 했다.

특히 세계문화유산이자 시드니를 대표하는 건 물인 오페라하우스등(物)은 현지인들로부터 많은 시 RIA HIGH-1

이번 한국불교 세계화 행사를 통해 중단에서는 정 법사의 역량을 키우는데 집중했다. 호주불교연합의 나 한인회, 영사관 등과 연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한 것은 물론, 정법사 신도를 대상으로 전통등 강습 도 진행했다. 정면사 회주 기후스님은 "이번 했시॥ 통해 호주의 한국불교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미 린돼 흐뭇하다"며 "준비하는 과정은 힘들었지만 뵘 고의사이 눈이면 난라운 느끼다"고 마하다

이와 함께 현대미술관 안에서는 사활음식을 알리

는 다양한 행사가 병원됐다. 불고무합시인다 사항은 시티과 대아스님은 여지인들에게 직접 사람은식 주 리법을 시연하고, 다양한 음식을 선보였다. 호주불교 연합회와 정관계 인사들과 사활음식을 공양한 것 외 에도 호주하군음식원의회를 대상으로 강연 및 시연 응 지명했다 또 중조 하지어했나야 과과어게 이기 전문가 및 조리업계 초청만찬도 마련됐다. 세계적인 요리학교 '르 꼬르돔 블루' 시드니 분교에서 현지 교수 및 한생들은 대상으로 사람은심에 대해 강여했 다. 이 자리에는 50여명의 참가자들과 르 꼬르돔 불 투 파리 보고 과계자들까지 함께 해 사항음식에 대 한 높은 관심을 보여했다. 불교문화사업단장 정산스 UC *STRUCKSHOURS STRUCK RING R 하고 1700년간 이어져 온 하뒤 행복의 지혜를 세계 인과 나누고자 이번 행사를 주관했다"며 "전통등과 불교문화에 열광하는 현지인들의 모습을 보며 한국 불교의 위상이 한층 높아졌음을 느꼈다"며 성공적 O로 평가했다.



오세아니아주 연락사무소 개원 종단·사찰간 네트워크 강화 모색

응조 시じ니 됐어서에 조계를 아내아니아즈 웨이 연락사무소가 문을 열었다. 지난 8월26일 시드니 정 버사/히즈 기회스니)는 OMONJOIC #01여만시므 소 하파식을 갖고, 지역 사람 연계 및 종단과 유대경

이번 정법사 연락사무소 개원은 종단핵심과재인 '한국본교 세계화'의 일환이다. 중단은 한국본교통 세계이에게 악리가 의해 그가 다약하 느낌을 해외 다. 뉴욕과 파리를 방문해 한국의 벡플스테이와 사 작음식은 소개했으며, 그 성과로 해외통별교구병을 대전하고 미두보레이트백교구를 성관하다 됐어야 락사무소는 특별교구보다 낮은 단계지만, 지역의 구 심점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인근 종단 사활간 네트 워크를 구축하고, 하군에 있는 중단과 연결해주는 대개역학을 받는다

오세아니아주 해외연락사무소 개원을 계기로, 좀 단은 앞으로 정법사에 스격년단위로 부처님오신님 여동주되어 야가 많은 유청 스푼다이 방향하는 포고 자료를 모아 너 2회 이상 정기지원 스지역연란사무 추천으로 호주불교계 스님의 한국 초점 및 종교 비자 취득 업무 지원 △연락사무소 지정 사활의 신 도 및 시도2세이 하구무하세한 지원 시조계주 포고 뭐 시디두르피트 화용 투하 시디 전해서 화난 지역

음 바문해 지전 체험해 볼 것을 귀했다. 6-25 전쟁

당시 참전국 가운데 하나인 호주와 한국의 오랜 위

호관계를 언급하며, 상생했던 두 나라가 들이 아님

8 01419813

△한군봉자 해외 방문시 지역연란사무소 연계프로 그런 개반 지역 및 호난 등은 조지한 계회이다. 정법사가 해외연락사무소로 지정된 배경에는 오 덴 역사와 함께 교민포교에 독보적인 역할을 해온 대부이다. 최근 등이 호주복교계도 급성자하고 있다.

30년 전만해도 불교인구가 전무하던 호주 인구 5% 에 달하는 불자가 생겨났고, 현지에서는 세 번째로 많은 종교 인구를 갖고 있다. 지난 20년간의 노력으 근 이렇지 됐면서야 포고성과는 이곳에 조계주 여관 사무소가 설치되 결정적인 이유다

총무원 사회부장 법광스님은 "앞으로 중단은 해 외 사찰 및 연락사무소 업무 관리를 위해 부서통합 노이용 지명한 거"이라마 "난다 시지점이 지역은 외 SHUROFU ZHIZARATI" TI URBITI 다양한 민준과 문화를 하나가 되게 하는 것 같다"고

이에 악서 8월26일에는 호주불규계 초점 오전 어린다 중조봉구여환경 경장 소토하다스니 보험장



정관계 주류인사와 사착은신 나눠 호주 연방정부 다무화장과도 참선

지난 28일 현대미술관 6층 하버퉁에서는 호주 정 관계 주류인사 조정만찬이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주다 대표단점 이외주 시도니오에서 중조에되대표 를 대표해 다문화장관인 케이트 문디 상원의원. NSW주 벡터 도미네로 다문화 장관 등과 호주봉교 여만하자 수피아모스님 등 100여 명이 취심했다

이 자기에서 흐므의장 자수시니요 시니듬이 소행 의 방편이자 오신체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음식, 싫 의 전환이 될 수 있는 템플스테이를 소개하며 한국

NSW주 벡터 도미넬로 다문화 장관은 "연꽃등 만들 기, 이경제한 등을 통해 하군의 오랜뒤 불교통 마니 는 이번 행사는 시도니를 대표하게 된 건 이라며 "다문화를 형성한 NSW주에 불교가 빛을 발하면서

주 조계족에 간사하다"면 "응조사회에서 하구이이 기여가 남로 확대되고 있는 지금 한국과 호주가 심 중위권에 오디티에를 이어가긴 바라다"고 만했다. '어너하세요 친구들' 하고 하고이로 이사를 건너

케이트 뿐다 다문화장과은 "중주시만등에게 1700 이자 2009년 만했더상 수상자이기도 한 빠냐와로 스 년 역사의 한국불교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님, 푸옥탄 스님 등 호주불교연합의 및 호주불자연 한테 과제자 때 어댑이 차서를 중조부고화성하는 기 원했다. 수프아모스님은 "한국분교 역사에 비해 호 조불교 역시는 100년에 불가하지만 서로 다르 저토 을 가진 불교가 서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다. 고 소개하며 "호주에서 불교를 포교하는 데 어려운 데, 이번에 주계중이 시드니에서 한국봉규의 전통과 이름다운은 전쟁질서 중조복교통 대표에 고만다는 인사를 전하다"고 밝혔다. 시드니=어현경 기자

감사인사를 전했다

홍모워장 스님이 소년이 이건됐음은 도아주?

② 정면사 오세이LI이죠 웨외메랍사용스 개의 하

③ 난생처음 붓글씨를 써보고 좋아하는 서 온 유화생과 불고문하시었다자 정사스님 ④ 시드니 오페라하우스를 형상화한 전통등을 보 는 사님들

■ 호주지역 하국불교 역사

중조지역 하구복고가 원은 반은 디디 전요 1968년으로 거슬린 음란간다 한국봉공국제네 트워크가 방향한 국제포교 잡지 (볏다림크)이 따르면 당시 원남 종전이후 한국인 근로자들 이 호주로 유입되면서 한국불교 포교가 시작 SECT WHEN ON SIZE AND CHEST WITH 셨던 숭산스님이 1970년대에 호주 퀸즈랜드 주에 대광사 선원을 세우면서 본격적인 포교 화동에 들어갔다 1980년대 초 시트나 서부 원 머 함에서 한국불교달마회가 결성됐다. 1990 년대 이후 해외포교의 원력을 세운 스님들의 진출로 한국사활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1970년대 숫산스님이

뀐즈랜드 주에 대광사 선원 개원 현재 한국분교 중추적 역할 하는

정법사 관음사 법보사 포교 활발

여째 하구불교의 중추적 역할을 단단하는 정법시 를 비롯해 편치볼 지역에 관음사, 우드포드 지역에 병난사가 이어 시じ니 지역과 노사오스웨인스 조 (NSW) 일대에 거주하는 불교신도들의 신행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이 밖의 지역에는 한국사람이 없어 한국불교 교세는 미약하다.

정버지는 Sixi 2004년의 이사이 시도등이 버텨에 참석하는 한국봉교를 대표하는 사활로 우뚝 섰다 정법사는 1993년 3월 불광사와 달마사가 통합하면 서 탄생했다. 회주 기후스님은 1991년 대안에서 어 현연수를 하다 불관시와 달마시의 운영이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시드니와 처음 인연을 맺었다. 참건 초 기 하 돈이 번단 건물에서 시작하 사격은 지난해까 지 네 동의 전각을 마련해 이제는 한국불교 성지로

자리매기했다. 비구니 스님이 정호스님이 세운 과음 사는 1988년에 문을 열었다. 스님이 선방에 있을 때 "용조에 스니 있는 점이 있는데 유명조건이 없어요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아타까운 사연을 전 하고 이곳에 왔다고 한다

봉사기금 마려운 위해 신도들과 함께 전통식품을 마듬이 하구시품쟁에 나품 하느 등 나면을 기울이기 도 했다. 현재 정기법회 뿐 아니라 템플스테이, 다도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포교활동을 펼치고 있다 번부사는 비구나 스님이 번입스님이 1983년에 참 건했다. 호주 블루마운틴에 위치한 유입한 한국사회 이다. 임요법회를 비롯해 별번 지역 법회를 주관하 는 등 지역 봉자들의 수행처 역학을 하고 있다.

유디얼 기자 ...

방문했던 스님은 "해외에 나가보면 한국봉교를 아는 사람은 극소수"라는 점을 인정했다. 미국 이 경오 있보이 제 다리이라마른 대표되는 다 베트블교, 중국불교가 주류고, 프랑스 역시 티 베트와 베트남황교가 황망하다. 호주에서는 태 국봉교와 베트남봉교가 황약하고 있다. 한국불교의 인지도가 낮은 깨닫은 한국 스님

부터 28일까지 호주 시드니 현대미술관에서 '1700년 한군봉구의 지혜' 행사를 진행한 조계 중 축무원장 자승스님으로부터 한군불교 세계

악서 한국복교 세계하를 위해 뉴용과 파리템

St Aletel officer regard field Scotters

■ 총무원장 자승스님 인터뷰 "한국북교 세계화는 계속 돼야" 하군불교 세계하의 일화으로 지난 8월24일

의 경우 교민 위주의 포교를 하기 때문이다. 그 래서 스뉘들의 포교역량을 가르는 동시에, 현 지 사람의 역량을 키우는 게 중단차원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호드웨잔 자수시니요 하구보고 세계하 시어 의 연속성을 강조했다. 스님은 "차기 어느 집행 부가 들어서는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생하다 보고 보고지를 와야가 하구보고를 소 개한다면, 한국봉교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킬 있고, 행사를 치르면서 종단의 역량도 향심



사망하는 총무원장 자순스님

됨 것"이라고 봤다. 이어 여지 사장과의 여제가 하구보고 세계하여 성고이 과거이라고 만하다. 웨이 구구에 주다 소속 사용이 이지만 데다스 는 각자 인연에 따라 자생한 사람들이다. 그러 다보니 종단과 유대감이 높지 않은 게 사실이 다. 축무위장 스님은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례 종단이 해외특별교구를 지정해 해외 사람 을 지원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동 부래의특별교구를 지정한 것이나 최근 시드니 정법사에 오세아니아주 여란사무소를 개위하 **경도 같은 취지다. 여란사무소는 지역 사항과** 중단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종단은 연락사무소를 통해 호주불교에 대한 상 와 바이하고 이번 시으로 지원되어 먼지 박시 을 고면한 것이다

으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를 위 를 하게 주다며 출지하고 이는 사이 주 하나가 외국인 스님을 재교육한 뒤, 해외사활에 파견 해 중단이 소정의 보시금을 제공하고 현지시 참에서 포교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 8 이 하유사에 위치한 국제불교학교는 해외포교 를 전담하는 비구니 스님들을 기르는 중단 유 일의 학교이기도 하다. 1기 졸업생 중 절반 이 상이 미구가 아르웨티나 등에서 해지포고웨 하고 있다. 지수스님은 이런 위치이 지속됐으로 지원된

스님은 한국불교 세계화 사업이 결심을 맺

야 한국불교가 세계인에게 전해질 것이라고 말 했다. 스님은 "33대 집행부의 사업은 뜨거운 몫은 보이며 3분 IB에 와서디느 이스턴트 간으 정책이 아니다"며 "장기적인 안목으로 로드맵 을 만들어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종 도듬의 의식이 변하고 개정된 중한조법을 이해 해 천천히 이뤄지는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김 을 매고 자랄 수 있도록 물을 줘야 한다"고 댓 MOTO

시드니=어현경 기자 emails